

## 省心篇(上)

景行録云 寶貨 用之有盡 忠孝 享之無窮。

⇒ 《경행록》에 이르기를, 금은보화는 쓰면 다 없어지지만 충효는 이를 누려도 다함이 없다. 있다.

⇒ 《景行録》に伝わるのに金銀宝華は使えばすべて消えるが忠孝はこれを享受しても終わることがない。

家和 貧也好 不義 富如何。 但存一子孝 何用子孫多。

⇒ 집안이 화목하면 가난해도 좋지만 의롭지 않으면 부자들 무엇하랴. 단 효하는 자식이 하나라도 있다면 많은 자손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 家が睦まじければ貧しくても良いが、正義がなければ金持ちだって何しようか。ただ孝する子が一人でもいれば多くの子孫が何の必要があるか?

父不憂心 因子孝 夫無煩惱 是妻賢。 言多語失 皆因酒 義斷親疎 只爲錢。

⇒ 아버지가 근심이 없는 것은 자식의 효도 때문이고 남편이 번뇌가 없음은 아내가 현명하기 때문이다. 말이 많아서 말로 실수하는 것은 다 술 때문이며 의가 끊어지고 친한 사이가 멀어지는 것은 오직 돈 때문이다.

⇒ お父さんの心配ことがないことは子の親孝行のためで、夫の煩惱がないことは妻が賢明だからだ。うるさくて言葉であやまちをすることはすべてお酒のためで義理切れて親しい関係が遠くなることはただお金のためだ。

既取非常樂 須防不測憂。

⇒ 이미 보통이 아닌 즐거움을 가졌거든 모름지기 예측할 수 없는 근심을 막아야 한다.

⇒ もう普通ではない楽しさを持ったとなら当然予測することができない懸念を阻まなければならない。

得寵思辱 居安慮危。

⇒ 사랑을 받을 때 욕된 일이 있을까 생각하고 편안하게 살 때에는 위험이 닥쳐오지 않을까 생각하라.

⇒ 愛される時不名誉な事があるかと思って、楽に暮らす時には危険が迫って来ないかを思いなさい。

榮輕辱淺 利重害深。

⇒ 영화(榮華)가 가벼우면 욕됨이 얇고 이로움이 무거우면 해로움도 깊다.

⇒ 榮華が軽ければ不名誉さが浅くてよさが重ければ有害なことも深い。

古書との出会い 省心篇 (上)

甚愛必甚費 甚譽必甚毀 甚喜必甚憂 甚賊必甚亡。

⇒사랑이 지나치면 반드시 그 소모가 심할 것이고, 명예가 지나치면 반드시 그 비방이 심할 것이고 기쁨이 지나치면 반드시 그 근심이 심할 것이며, 뇌물을 탐하는 마음이 지나치면 그 망함이 심할 것이다.

⇒愛が度が外れれば必ずその消耗が激しいだろうし、名誉が度が外れれば必ずその誹謗がひどいだろうし、喜びが度が外れれば必ずその懸念がひどいだろうし、わいろを貪る心が度が外れればその亡びることがひどいだろう。

子曰、不觀高崖 何以知顛墜之患 不臨深淵 何以知沒溺之患 不觀巨海 何以知風波之患。

⇒공자가 말하기를, 높은 낭떠러지를 보지 않고서야 어찌 굴러 떨어지는 근심을 알 것이며, 깊은 연못에 와보지 않고서야 어찌 물에 빠져 죽는 근심을 알 것이며, 큰 바다를 보지 않고서야 어찌 풍파의 근심을 알겠는가?

⇒孔子が言うのに高い断崖を見なくてどうして転んで落ちる懸念が分かるはずであり、深い池に来て見なくてどうして水におぼれて死ぬ懸念が分かるはずであり、大きい海を見なくてどうして風波の懸念が分かるか?

欲知未来 先察已然。

⇒앞날을 알고자 하거든 먼저 지난 일들을 살피라.

⇒未来が分かろうとしたら先に去ったことを察しなさい。

子曰、明鏡 所以察形 往者 所以知今。

⇒공자가 말하기를, 맑은 거울은 얼굴을 살피게 하고 지나간 일은 현재를 알게 한다.

⇒孔子が言うのに清い鏡は顔を察するようにして過ぎ去った事は現在が分かるようにする。

過去事 如明鏡 未来事 暗似漆。

⇒지나간 일은 맑은 거울처럼 밝고 앞날의 일은 칠흑처럼 어둡다.

⇒過ぎ去った事は清い鏡のように明るくて未来の事は漆黒のように暗い。

景行録云、明朝之事 薄暮 不可必 薄暮之事 晡時 不可必。

⇒《경행록》에 이르기를, 내일 아침 일을 오늘 저녁 무렵에 꼭 알 수 없으며 오늘 저녁의 일을 오후 네 시에도 꼭 알 수가 없다.

⇒《景行録》に伝わるのに明日の朝の事を今日の夕方頃に必ず分かることができないし、今日夕方の事を午後四時にも必ず分からない。